

한·일 해저터널 노선안

(자료제공:일한해저터널연구회)



“초광역경제권 토대, 동북아교통망 시발점”

한·일 해저터널 급부상

한·일 해저터널 건설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BDI)은 27일 일본 후쿠오카와 한국 동남권(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한·일 간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 동북아복합교통망 구축 차원에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발연 동남권~후쿠오카 구축 본격 연구

“경제파급 효과 막대” 부산시 적극 추진

양 도시 민간 차원 연구회도 잇달아 발족

부발연은 최치국 도시창조본부 선임연구위원을 단장으로, 김형균 정책협력처장, 금성근 지식경제본부 선임연구위원 등 교통, 물류, 사회·문화, 경제 분야 전문가 8명으로 ‘한·일해저터널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부발연 TF팀은 현재 5차례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2월 초까지 1차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동북아물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담은 ‘국제물류교통 도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발연 이계식 원장은 곧 부산~거제 간 거대교의 3.7km 침매터널 공사 시공회사인 대우건설의 모기업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 등 국내 재계 인사와도 직접 면담해 사업 타당성

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허남식 시장과 박삼구 회장은 지난 17일 가덕도 침매터널 현장에서 직접 만나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국내기업의 참여 여부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허 시장은 27일 “향후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는 초광역적 국제상황에 대처하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부산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한·일 해저터널 필요성과 효과, 문제점 극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부발연에 지시했다”면서 “다음달 2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일 해저터널의 연구추진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해저터널을 통해서 일본 규슈 지역과 하

나의 생활권으로 형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해저터널 TF팀의 최치국 단장은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해 부산의 시각에서 동북아통합교통망과 국제자유무역도시의 기반시설 차원에서 한·일 해저터널을 연구 중”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논의의 하나로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발연은 △한·일, 한·중 해저터널이 동북아국가경제협력체계에서의 타당성 △초광역경제권 형성의 기반시설로 적합성 △직접 영향권인 기·종점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부산항 물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한·일 해저터널 논의에서 연결부를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 접속이 용이하고, 해상터널에서 육상으로 연결부 부지 확보가 가능한 부산 강서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에는 민간 분야에서 이용률 일신설계 회장, 서의택 종양도시계획위원장(전 부산외대 총장) 등으로 (사)한·일해저터널 연구회를 발족시켜 활동 중이다. 일본은 민간차원의 일·한 해저터널연구회에 이어 지난 3월에 일본 자민당 규슈지역 중의원 14명을 중심으로 일·한 해저터널추진동맹을 발족했다.

이병철 기자 peter@busanilbo.com

釜山日報

2008年6月27日

日韓海底トンネル急浮上「超広域経済圏土台、東北アジア交通網始発点」

釜山発展研究院 東南圏～福岡 構築本格研究

「経済波及効果、莫大」釜山市積極推進、両都市民間レベルの研究会も続々発足

日韓海底トンネル建設の論議が水面に急浮上している。釜山市と釜山発展研究院（BDI）は27日、日本の福岡と韓国の東南圏（釜山・慶尚南道）地域を結ぶ日韓間の海底トンネル建設に関し、北東アジア複合交通網構築レベルで本格的な研究に着手したと明らかにした。

釜山発展研究院はチエ・チグ都市創造本部選任研究委員を団長に、キム・ヒヨンギュン政策協力署長、クム・ソンゲン知識経済本部選任研究委員ら、交通、物流、社会・文化、経済分野の専門家8人で「日韓海底トンネルのタスクフォース（TF）チーム」を構成し本格的な研究に突入した。

釜山発展研究院TFチームは、これまで5回のセミナーを開催したのに続き、来る12月初めまでに1次報告書を提出し、国内外の専門家たちを参加させ、北東アジア物流の中心都市としての役割と政策方向を入れた「国際物流交通都市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計画だ。

これと共に釜山発展研究院のイ・ケシク院長は、まもなく釜山～巨済間の巨加大橋の3.7キロの沈埋トンネル工事施工会社である大宇建設の親企業、錦湖アシアナグループのパク・サムグ会長ら国内の財界人士とも直接面談し、事業の妥当性を論議する予定だ。

これに先立ち、ホ・ナムシク（許南植）市長とパク・サムグ会長は、去る17日に加徳島の沈埋トンネル現場で直接会合し「日韓海底トンネル」に対する国内企業の参与可否を非公式的に論議した。

許市長は27日「今後、国境の概念がなくなる超広域的な国際状況に対処するため、日本との経済協力を通じた釜山地域の経済発展のために日韓海底トンネルの必要性と効果、問題点の克服方法に対する具体的な検討を釜山発展研究院に指示した」とし、「来月2日の就任2周年記念記者会見で日韓海底トンネルの研究推進を公式発表する」と明らかにした。

許市長は「政府レベルでも関心を持つような共感の帶を広げる努力が必要」とし、「海底トンネルを通して日本の九州地域とひとつの生活圏の形成が可能」とつけ加えた。

日韓海底トンネルTFチームのチエ・チグク団長は「北東アジア経済統合のため、釜山の視点で北東アジア統合交通網と国際自由貿易都市の基盤施設面から日韓海底トンネルを研究中」としながら「現在論議中である釜山～福岡の超広域経済圏論議の

ひとつとして考えている」と語った。

釜山発展研究院は、△韓日・韓中海底トンネルが東北アジア国家経済協力体系での妥当性、△超広域経済圏形成の基盤施設としての適合性、△直接影響圏である起・終点地域の経済的波及効果、△釜山港物流に与える影響等を分析する計画だ。

釜山市は今回の日韓海底トンネル論議で、連結部を港湾と鉄道、高速道路の接続が容易で、海上トンネルと陸上との連結部の土地確保が可能な釜山の江西区を念頭に置いていると伝えた。

いっぽう、国内には民間分野でイ・ヨンフム（李龍欽）一信設計会長、ソ・イテク（徐義澤）中央都市計画委員長（前釜山外大総長）らが社団法人韓日海底トンネル研究会を発足させ活動中だ。日本は民間レベルの日韓海底トンネル研究会に続き、去る3月に日本の自民党九州地域衆議院14人を中心に日韓海底トンネル推進同盟を発足させた。